

박경리, 그 비극의 미학

안 남 연*

1. 머리말
2. 여성 인물들의 비극과 삶의 의지
3. 남성 인물 속에 내재된 냉혹성과 포악성
4. 한의 양상
5. 운명과 대항
6. 맺음말

초록

박경리의 작품들을 보면 여인의 한과 비극성으로 집결된다. 이는 작가 박경리 개인의 슬픔과 아픔을 극화시킨 작품으로의 승화였다. 이렇듯 작가의 운명적 고통 체험을 근간으로 내면화와 육화된 일련의 장면 중 별미로 꼽히는 작품이 『김약국의 딸들』이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운명적 불행과 비극적으로 몰락해 가는 김약국의 가족사를 통해 이에 맞서 저항하는 여성 인물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박경리는 『김약국의 딸들』을 통하여 3대에 걸친 비극의 내림을 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양상의 죽음과 전통적 유교사회에서 신성시되던 정조관념이 무너졌을 때 여성들의 인생은 처참함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뚜렷한 반상 계급사회에서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은 금기였으며 이 규칙을 깬 연인은 고독과 불행 그리고 경멸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제도적 속박과 모순을 안은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이란 칠거지악의 명에 속에 남성에게 의한 속박과 희생의 대상이었다.

남성 논리의 잣대로 여성에게 요구한 것은 끝없는 인내와 순종이었으며 이를 큰 부덕으로 치켜세웠다. 여성에게만 강요되었던 많은 덕목들은 여인들 가슴에 응어리로

* 경기대학교 문예창작전공 조교수

남아 한국적 정서인 한으로 표출되었다.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접 받는,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으로 치부되었다. 오래 전에 비상 먹고 자결한 생모를 둔 성수 김약국은 딸만 다섯을 두어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한 현실과 계속되는 딸들의 불행을 통하여 작가 박경리는 운명이란 단어를 대입시킨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연속되는 불운을 선대에 한 맺힌 영혼의 세계와 결부시킴으로써 신비화시킨다.

그러나 비극적인 운명에 목적 없이 무너져 내리는 개인의 무력화라기보다는 그 각 개체들이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 『김약국의 딸들』의 생명력이자 작품성이라 말할 수 있겠다. 결국, 시종일관되는 불운의 연속 속에서 숙절없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동성이 아닌 사나운 운명 앞에 보이는 당당함과 자기주관 그리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주위진 현실에 맞서서 살아내려는 인간의 노력이 극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감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1. 머리말

박경리의 작품은 인과응보와 업이라는 불교적 윤회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전생에 지은 죄의 대가를 현생에서 갚아 가는 고통의 과정, 그것을 운명으로 수궁하는 토속적 정서를 박경리만큼 생생하게 그려낸 작가는 드물다. 박경리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연과 운명 그리고 원죄는 개인사적으로 불행했던 작가 자신의 체험과 결핍으로 가득했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과 겹쳐지면서 박경리 작품 특유의 비극성을 창출한다.

박경리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김약국의 딸들』 『파시』 『시장과 전장』 『토지』는 공통적으로 여인의 한과 비극성을 보여준다. 이렇듯 작품 속 여인들이 겪는 비극은 작가 박경리 개인의 불행한 개인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불운한 유년시절, 한국전쟁이라는 역사 체험, 20대에 겪어야 했던 남편과 아들의 죽음, 홀어머니와 하나 남은 딸자식을 부양해야 했던 가정으로서의 경험 등 박경리의 실제 삶은 고독과 생존과의 치절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경리는 불행한 삶의 체험을 소설로 승화시킨 작가에 속한다. 작가에게 있어 삶의 카타르시스는 쏟아내는 것, 즉 쓰는 행위였다. 작가의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에 대한 거리 두기와 미학화가 작품으로 결과한 것이다.

작가의 실제적인 고통 체험을 근간으로 한 일련의 장편 중 가장 탁월한 성취로 꼽히는 작품이 『김약국의 딸들』이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운명적 불행과 비극적으로 몰락해 가는 김약국의 가족사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릇된 선택에서 비롯된 김약국집 딸들의 삶, 그 불행에 원인을 제공한 남성들의 내면을 조명하여, 『김약국의 딸들』의 비극성과 이에 맞서 저항하는 여성 인물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여성 인물들의 비극과 삶의 의지

『김약국의 딸들』의 시대적 배경은 1864년경부터 1930년대까지로, 공간은 항구 통영이 본거지이다. 문제 분석에 앞서 필요상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언급하면, 문둥이로 유명한 고장 통영에 김봉제·봉룡·봉희 세 남매가 살고 있었다. 연순이란 병약한 딸과 아내가 있는 봉제영감은 파상풍으로 일찍 세상을 하직하고 둘째인 봉룡은 본처가 병으로 죽자 숙정을 재취로 얻지만 후처를 사모하는 사내인 송육을 죽이고 방랑길에 오르며 이에 숙정은 자결하게 된다. 봉룡과 숙정 사이에 유일한 혈육인 성수에 의해 <김약국>이란 상호로 가업을 잇게 된다. 김약국은 큰아버지의 딸인 사촌누이 연순을 사모하나 연순은 혼인을 하게 되고 일찍 명을 달리한다. 후에 김약국은 한실택과 결혼하여 딸만 다섯을 두게 되며 이 딸들의 성장과 결혼이 이 작품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김약국집 딸들의 불행한 결혼생활로 인하여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어 버린 여성들을 그려 가는 작가의 시각은 단순·평면적이지 않다는 데 이

작품의 진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 작가가 이들의 불행을 통하여 대중의 연민이나, 눈물만을 강요했다면 이는 통속적 멜로물로 전락했을 것이지, 60년대 이후의 수작으로 지금까지의 문학적 위치를 고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박경리 문학의 주된 관심은 인간 삶의 배경인 역사와 사회현실 또는 양자의 상호관련 양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존재의 초월적 일반성을 탐구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중략...) 작가의 인간 통찰은 심오하여 이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한국문학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개인의 삶도 역사 전개에 객관적 규정성으로부터 전적으로 문제점을 자유롭지 못한 것이기에 박경리의 이러한 문학관은 이미 근본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¹⁾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현실 인식보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내는 인물들의 성격·특성에 더욱 주목했다는 점이 박경리의 개성이자 아쉬움인 것이다. 즉, 박경리 문학의 특징은 인물의 개성이자 역사성이나 현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닌 시사성은 단지 인물의 두각을 위한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 하나 박경리 문학의 특징으로 운명에 대한 끈질긴 집착을 들 수 있다. 대를 잇는 불행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생의 수순을 밟는다는, 즉 시대적 상황과 그 당시의 민중들의 가치관이나 풍습에서 근원을 찾는 합리성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에 의해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라는 운명론자적 입장이 그것이다. <등짐장사가 나오면 그 장면에서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등짐을 걸머지고 신발이 떨어질까 봐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피약벌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지요. 그런 사람 하나 하나의 운명, 그리고 그 사람의 현실과의 대결을 통해서 역사가 투영됩니다.>²⁾ 박경리의 등장 인물론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작가는 역사나 시대가 인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1)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예하, 1993), p.459.

2) 김치수, 「박경리와 대화」, 『박경리와 이청준』(민음사, 1982), p.172.

배여있는 것이지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원으로 돌아가, 『김약국의 딸들』에서 큰딸 용숙은 남편이 일찍 죽어 초년 과부가 되었다. 둘째딸 용빈은 아버지 김약국의 사업실패로 인한 애인 정홍섭의 변심이며, 셋째 용란은 아버지가 서기두와 정혼을 작정한데 반해 머슴 한돌과의 정사로 낙인이 찍혀 결국 아편쟁이 연학에게 흠있는 여인으로 시집을 가게 되나 결국 남편의 의처증에 기름을 붓는 한돌과의 불륜으로 한돌과 한실택이 그의 도끼 아래 즉사하며 그 장면을 직시한 용란은 미쳐버린다. 넷째 용옥은 용란 대신 서기두와 결혼을 하지만 남편의 소외와 시아버지 서영감의 겁탈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어 남편을 찾아 부산으로 가는 중 배의 침몰로 죽음에 이른다. 다섯째 용혜는 언니 용빈과 몰락한 통영을 떠남으로써 결말을 맺는다.

『김약국의 딸들』에서 전통적인 한약방을 경영하고 있는 김약국이 어장이나 어선에 투자를 하는 행위는 이미 김약국 일가가 변동하는 사회 속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빈과 용옥이 기독교 도이고 용빈이 신식 교육을 받았고, 여성으로서는 직업을 갖고 있으며 용빈의 6촌인 ‘정운’이 의사로서 김약국의 병명을 암으로 진단하는 것은 봉건시대의 가치관과 제도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³⁾ 이는 구한말에서 1930년대까지의 급변하는 시대 양상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빠른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잘 적응해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가 하는 명제를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딸 용란의 머슴 한돌과의 사랑은 신분이란 제도의 장벽에 부딪쳐 아편 중독으로 인한 성불구 연학과 결혼함으로써 사회적 신분 질서에 순응하는 듯하나 얼마 후 다시 나타난 한돌과의 재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주변의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랑과 성을 획득함으로써 용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 당시 시대상황과 민중의 보편적 가치관에 준해 볼 때 용란의 이러한 행위는 파격이며 파국이었다. 결국 연학의 살인행

3) 조남현, 『박경리』(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8)(서강대출판부, 1996), p.80.

위에 미쳐버리는 비극적 여인인 용란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행동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셋째딸 용란의 개성 있는 용기였으며 시대적 풍습과 일반적 사고를 극복하는 앞서간 열린 여성임을 부인할 수 없겠다.

초년 과부인 큰딸 용숙이 자신의 아들을 검진하기 위해 왕진하러 오는 의사와의 간통행위나 돈에 집착하여 재산을 불리는 이재행위, 그리고 그 간통사건으로 통영이 떠들썩해졌음에도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 용옥의 속물적 행위는 불운한 운명에 굴복하는 나약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보수적 현실에 도전장을 내는 것이다. 모순된 자존심을 통하여 넷째딸 용옥은 셋째언니 용란을 사모했던 서기두의 아내가 되지만 용란의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기두에게 소외당한다. 아내를 떠나 부산으로 간 남편이 없는 틈에 벌어진 시아버지 겁탈위험으로부터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끝내 남편을 찾아 떠나는 길에 배의 침몰로 생명을 잃는다. 넷째딸 용옥은 죽음으로 마감된 불운의 인생을 살았지만 언니를 사랑하는 남편 서기두에 대한 사랑의 의지와 인내를 보임으로써 외형상 김약국 집 딸들 중 제도적 질서에 순응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보이고 있으나 서기두의 사랑을 찾고자 하는 강한 내적 의지를 인내와 자기 희생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강한 정신력을 보이고 있다. 둘째딸 용빈은 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중학교 교원이며 김약국의 몰락으로 변심한 애인 정홍섭을 냉정하게 떠나보내는 이지적 인물이다. 아버지의 재정적 몰락이 애인을 잃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되지만 비참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과 인생관을 정립하는 가장 독립적 현대 여성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불운한 운명의 지붕밑이지만 자신의 생애는 외상을 입지 않은 막내딸 용혜와 지성적 남성인 강극의 만남은 저주받은 운명에 의해 몰락해버린 김약국집의 건강한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남성 인물 속에 내재된 냉혹성과 포악성

<나는 그 이야기를 시시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산신에게 중요하고 학대하던 남자의 자식을 낳게 해 주십시오 애원을 한 어머니를 경멸했었다. 그것은 사랑의 강요였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은 내게다가 결코 남성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리라는 굳은 신념을 못박아 주고야 말았다. (...중략...) 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경멸, 아버지에 대한 증오, 그런 극단적인 감정 속에서 고독을 만들었고 책과 더불어 공상의 세계를 쌓았다>⁴⁾는 박경리의 자전적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유년시절 딸은 아버지란 남성을 통하여 세상의 못 남성에 대한 인식이 결정되듯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그녀의 문학 속에서 여러 남성인물 유형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표현된다.

<작가는 여성인 어머니를 억압하는 남성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억압-피억압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한 인간의 운명을 불행한 것으로 만드는지를 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 구조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⁵⁾ 『김약국의 딸들』에서 김약국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작가의 뇌리 속에 각인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의관을 정제한 양반의 풍모로써 단정하며 감정이나 의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엄숙하고 점잖은 모습. 그러나 현실의 물질이나 이재에는 밝지 못해 가산을 탕진해 버리는 무능함과 선비적 이미지로서의 깨끗한 인상은 기생 소청과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약국은 꿈쩍하지 않고 있었다. 소청은 좀 망설이다가 손을 뻗쳐 김약국 조끼 단추를 잡았다. 김약국은 그 손을 착 뿌리치면서 “내가 벗겠다.” “매몰스럽기도……” (...중략...) “술이 과했구나.” 그는 부스스 일어나 옷을 입고 모자

4) 박경리, 「반항 정신의 소산」, 『창작실기론』(어문각, 1962), p.369.

5) 류보선, 「비극성에서 한으로, 운명에서 역사로」, 『작가세계』(작가특집 22호) (1994. 가을), p.22.

를 눌러 썼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소청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⁶⁾

그러나 김약국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통념과 같이 소청을 첩으로서 본부인 한실택과 한집에 거처케 하지도 않았고, 살림을 차려주지도 않았다. 그저 소청의 일방적 사랑으로 아무런 물질적 배려 없이 김약국은 소청의 수발을 받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김약국의 태도는 이기적이며 냉담담백한 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둘째딸 용빈의 애인이었던 정홍섭은 그 시대의 지식인 계층에 속하는 젊은이다. 용빈과 장래를 약속한 연인관계였지만 김약국의 경제적 몰락은 정홍섭의 연정을 냉각시켰고,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조차 타산과 저울질로 매김하려는 속물적 근성을 드러내는 이기적 남성이다. 셋째딸 용란과 육체적 쾌락에 빠졌던 머슴 ‘한돌’은 원시적 본능에 충실한 단순 우직한 사나이다. 미래지향적인 면이나 현실 개혁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힘과 수컷 성에 의지하는 본능적인 남성형이다. 결국 이러한 ‘한돌’의 단순성이 용란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시대적 계급을 뛰어넘어 용란과의 도주로 새로운 인생을 펼쳐지도 못했고, 보수적인 시대에 처녀 용란에게 오점을 남겨 양반의 딸자인 최연홍에게 시집을 가게하는 원인제공자로서 결국 최연홍의 도끼세례에 목숨을 잃고 용란을 정신착란자로 만드는 우둔하고 불운한 남성이다. 용란을 사모했지만 결국 용옥과 결혼을 하는 ‘서기두’는 『김약국의 딸들』에서 바람직한 남성의 면모를 많이 갖춘 인물로 비쳐진다. 성실 근면하고 과묵한 남성으로서, 한 집단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과 힘을 갖추었지만 빛나간 사랑 때문에 방황해야하며 결국 아내와 아이를 바다에 침몰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운의 사나이다. 서기두의 할아버지 서영감은 아들의 방랑을 틈타 며느리를 겁탈하려고 하는 부도덕한 인간으로 나타난다. 셋째딸 용란과 결혼하게 된 최연홍은 가난한 아편중독자이자 성

6)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나남, 1993), pp.170~171.

불구자이다. 단지 양반의 아들이라는 점과 머슴과의 정사로 처녀를 상실한 용란의 오점 때문에 이루어진 혼인이다. 그러나 자신의 성적 불구와 아내 용란의 과오로 의처증이 심화되어 용란에게 폐약을 부리며 자주 폭행한다. 결국 아편중독으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다시 찾아온 한돌과 야반도주를 하던 아내 용란의 소식을 석방되던 날 듣게 된 연학은 숲속으로 숨어든 한돌을 찾아내어 도끼로 찍어 살해한다.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용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된다. 『김약국의 딸들』에서 가장 패륜적 남성으로 그려진 인물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들의 성격 속에서 작가가 아버지에 느꼈던 원망과 증오가 녹아있다. 물론 소설이란 허구에 의해 좀더 극적으로 표현되었을 뿐, 그녀가 유년시절 부성을 통한 남성인식의 부정성이 비열하고 포악한 남성인물들을 그림으로써 평범한 여성들이 불행해지고 파멸하는 파국적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가의 따뜻한 부성에의 갈구가 왜곡됨을 의미한다. 성장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냉담으로 소외당한 여성인 어머니의 불행한 인생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작가에게 남성은 여성의 운명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이며 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현실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 인식에의 도전을 작가는 가슴속에 반항으로써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남성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이 은연중에 배어있는 것이다. 둘째딸 용빈은 중학교 교사라는 전문직을 가진 교육받은 여성으로 설정했고, 막내 용혜도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묘사함으로써 남성에 의해 운명지워졌던 과거 여성들의 수동적인 운명의 극복과 현실 타파의 의지를 강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4. 한의 양상

‘한’이란 한국 고유의 정서다. 특히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가부장적 유교전통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하위개념 이었고 종속적이었다. 남편의 가족, 남편, 남성들에게 소외되고 억압당하는 과정에서 겉으로 표출할 수 없는 불만들이 안으로 감히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한’이란 가슴의 응어리는 처녀귀신·며느리귀신 등의 한국 특유의 귀신문화로 이어진다. 억눌린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시키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생전에 포한에 의해 구천을 맴도는 귀신이 되어 살아 있는 사람들 앞에 공포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능욕을 고백한 후 불만을 해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훼손된 것까지를 감싸안는 순백의 삶으로 한국 여인들의 ‘한’을 찾은 것이다. ‘한’은 위대한 모성의 세계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그 아비를 위해 아들을 위해 끝내 좌절하지 않았던 여인들의 한을 그는 이 훼손된 시대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인간적 덕목으로 설정한다>⁷⁾고 박경리 작품 속에서 여성의 한이 갖는 긍정성에 대하여 펴려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한은 오늘날에도 서리가 맺힐 정도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써 전래되어 왔다. 물론 한의 감정이 여성 쪽에 두드러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교권 사회에서는 신분의 경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소외받은 남성도 한의 영역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가부장 사회에서는 남성도 여성에 비하여 성적인 기득권을 가지게는 되었지만 계급과 나이 전통에 의해 감정표현이 자유롭지가 못하였다. 이는 또 다른 양상의 한을 생성했다. 작품 『김약국의 딸들』에서 한의 형태는 분석해보면, <운명의 행정이 인물들에게 주어진 결핍과 그것의 충족을 위한 욕망과 욕망에 대한 금기의 폭력에 의한 좌절의 연쇄체로 패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운명의 행정은 ‘한’을 낳고 해원의 욕망으로 종결된다.>⁸⁾ 즉 일대 김약국가에는 김봉제, 김봉룡, 김봉희 3남매가 있었다. 둘째이들 김봉룡은 처가 죽자, 드센 팔자 때문에 약혼자 송옥의 집안으로부터 파혼을 당

7) 류보선, 앞의 글, p.40.

8) 명형태, 『비극적 운명과 한』, 『여성과 문학』 제3집(1999), p.73.

하게 된 숙정을 후처로 맞아 성수를 낳는다. 그러나 약혼자 송옥이 숙정을 찾자 봉룡은 의치증으로 송옥을 때려죽인다. 이에 숙정은 비상을 먹고 자결하게 되고 고아가 된 성수를 아들이 없는 큰댁 봉제와 송씨 부인이 양자로 들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봉룡의 집을 도깨비집이라 부른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면 비상을 먹고 죽은 숙정과 숲 속에서 봉룡의 칼에 맞아 죽은 나그네의 혼령이 나타난다는 것이다.>⁹⁾ 이런 연유로 송씨부인은 성수를 멀리하고 집안의 화근으로 생각해서 모질게 대한다. 송씨부인에게는 연순이란 병약한 딸이 하나 있다. 연순의 약골 때문에 양반의 가문이란 것 외에는 백수건달인 택진과 혼약을 하게 되고 택진은 봉제영감댁 사위가 되자마자 장모인 송씨와 결탁해 재산 빼돌리기에 혈안이 된다. 송씨는 걸림돌이 되는 성수를 눈엣가시로 알고 택진은 아이까지 낳은 기생 옥화에게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자주 찾는다. 연순과 성수는 사촌간이나 서로 남다른 정을 느낀다. 근친간이란 금기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경계하나 현세의 한을 이승에서 풀자고 다짐한다. 곧 연순이 죽고 사위 택진의 배신을 알게된 송씨도 얼마 못살고 세상을 하직한다. 성수는 한실댁과 결혼하여 딸 다섯을 두게 된다. 큰딸 용숙은 초년 과부가 되어 재물 모으기에 인생을 걸고 하나 아들의 왕진 의사와 정이나 영아살해 혐의로 형무소에 드나들다 무혐의로 풀려난다. 둘째딸 용빈은 정국주의 아들 홍섭과 약혼한 사이나 김약국의 몰락으로 과국을 맞게 되고, 셋째딸 용란은 머슴 한들과 정분이 나 처녀를 잃게 되자 양반의 자손이지만 성불구이며 아편쟁이인 연학과 결혼한다. 그러나 다시 찾아온 한들과 야반도주하다 이를 알게 된 남편 연학의 도끼에 장모 한실댁과 한둘이 죽게되자 미쳐버린다. 용란을 사랑했던 기두는 넷째딸 용옥과 결혼하지만 아들하나만 남긴 채 방랑생활을 하며 홀시아버지 서영감의 수작에 놀란 용옥은 남편 찾으러 배를 탔다가 풍랑으로 아이와 사망한다. 결국 용빈과 막내딸 용혜가 고향 통영을 떠나는 것으로 김약국가

9)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나남, 2000).

의 비극은 막을 내린다. 성수의 생모가 비상을 먹고 죽은 한은 성수의 이승에서 맺을 수 없는 근친 사랑의 한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섯딸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허구적 시간과 공간을 사는 여러 인물들의 정신세계를 점괘·사주·신탁의 외경과 그것에의 도발과 저항이 주는 징벌의 두려움이 무의식처럼 지배하고 있다>¹⁰⁾는 전경갑의 본지와 같이 '비상먹은 자식은 지리지 않는다'는 통념을 어긴 어머니 숙정의 죄는 아들 성수와 그의 딸들 대에까지 깊음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가슴속에 결집된 '한'의 여러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운명과 대항

<인간의 운명이란 어느 때건 존재한다. 예컨대 인간은 결국 죽는다라는 명제야말로 운명론적이라고 말한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결국 죽는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개인들의 태도에는 각자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¹¹⁾라는 평론가 김만수의 견해와 같이 작가 박경리 역시도 인간은 타고 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걷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러한 주관인 『김약국의 딸들』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박경리 문학의 주된 관심은 인간 삶의 배경인 역사와 사회 현실 또는 양자의 상호관련 양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존재의 초월적 일반성을 탐구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중략...) 작가의 인간통찰은 심오하여 이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한국문학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개인의 삶도 역사 전개의 객관적 규정성으로부터 전적으로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기에 박경리의 이러한 문학관은 이미 근본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¹²⁾고 지적하고 있다.

10) 전경갑, 『육망의 통제와 탈주』(한길사, 1999), p.200.

11) 김만수, 『자신의 운명 찾아가기』(새미, 1998), p.80.

즉 작가는 시대의식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결국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인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운명론에 입각해서 어떻게 피해를 입고, 해결하는가 아니면 좌절하는가에 따른 인물들의 성격과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그러면 작품 『김약국의 딸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김약국이 성수의 어머니 숙정이 비상 먹고 자결하는 것으로부터 김약국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김약국인 성수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는 대가 끊긴다는 한국적 통념에서 몹시 부정적인 상황이다. 딸만 다섯을 둔 김약국가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인 여성은 혼기 놓치지 말고 적당한 때 좋은 배필 만나 아들, 딸 낳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통념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김약국가의 큰딸인 용숙은 일찍 남편이 죽어 아들하나 딸린 초년 과부가 된다. 이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영역이다. 이를 우리는 통상 운명, 즉 하늘의 뜻이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용숙은 그러한 자신의 불행과 불균형을 이제놓음으로써 보상받으려하고 아들의 주치의와 불륜행각을 벌이다 영아살해 혐의까지 받고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오나 당당히 자신의 불운과 맞서 경제력을 키우며 미처버린 동생 용란의 뒤를 돌보게 된다. 용숙은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속박당했지만 그 불행 중 행복을 찾으려는 적극성과 생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용빈은 양혼자 정홍섭과 사랑하는 사이지만 김약국의 사업 몰락으로 인한 홍섭의 변심으로 파혼당한다. 이 역시 용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아버지의 사업실패가 가져온 운명적 불운이다. 그러나 용빈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학교라는 직장에 정열을 쏟으며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지성을 키움으로써 불행을 상쇄시킨다. 셋째 용란은 머슴 한돌과의 정사로 성불구자이며 야편쟁이인 부잣집 건달 아들인 연학과 결혼하게 되고 불행한 생활을 하던 중 한돌과의 야반도주를 하나 뒤쫓아 온 남편

12) 김윤식·정호용, 『한국소설사』(예하, 1993), p.459.

연학의 도끼에 찍혀 죽사한 어머니 한실덕과 한들의 죽음을 목격한 후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 용란의 비극은 한들과의 결혼이 성사될 수 없는 당시의 신분제도와 계급의 차이에 있었다. 그러나 용란은 자신의 사랑을 관철시키려고 다시 돌아온 한들과 야밤도주를 함으로써 운명에 도전하지만 연학의 도끼에 찍힌 한들의 죽음 앞에 정신을 놓음으로써 용란은 운명에 저항하는 것이다. 넷째딸 용옥은 용란을 사랑했던 서기두와 결혼함으로써 불행의 씨앗을 품고 생활을 시작한다. 결국 마음을 잡지 못한 남편 기두의 방랑과 홀시아버지 서영감의 겁탈에 어린 아들과 남편을 찾아가던 중 배의 침몰로 명을 달리한다. 용옥은 그녀에게 주워진 어긋난 운명을 제자리에 반듯하게 세우려 하다가 사망한다. 배의 침몰 역시도 하나의 사고로써 용옥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리고 남편 기두를 찾아 나섬으로써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구체화시켰지만 결국 사고로 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김약국의 딸들』에서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본질적인 양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적인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비극의 어떤 그림자의 인식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에 생성과 소멸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가족에 있어서 찾아오게 되는 불행의 그림자는 논리적인 설명을 떠나서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다>¹³⁾는 김치수의 논리는 김약국집 가게와 딸들의 줄초상을 이룸이며,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운명의 신비를 지칭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박경리는 『김약국의 딸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불행을 여러 인물들의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극단적인 비극의 미학을 창조했다. 그러나 내용이 단순한 비극적 종말의 나열이었다면 이 작품의 백미는 사라졌을 것이며, 또한 대물림하는 가계의 비극적 운명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는 인물들의 강한 의지를 극렬히 보여줌으로써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서의 예술성과 생명성을 동시에 획득하게 된 것이다.

13) 김치수, 『비극의 미학과 개인의 한』(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p.80.

6. 맺음말

박경리는 『김약국의 딸들』을 통하여 3대에 걸친 비극의 내림을 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양상의 죽음과 전통적 유교사회에서 신성시되던 정조관념이 무너졌을 때 여성들의 인생은 처참함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복된 여성의 생이란 부모 잘 만나 편안히 성장하고 때가 되었을 때 좋은 배필 만나 그늘 속에 안주하다 늘그막에 잘 키운 아들자식의 효도를 받는 것이라는 통념 속에서 금기시되던 혼전 연애사건으로 처녀를 상실했을 때 기다리는 것은 제도권 밖의 소외되고 불명예스러운 미래뿐이었다. 뚜렷한 반상 계급사회에서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은 금기였으며 이 규칙을 깬 연인은 고독과 불행 그리고 경멸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제도적 속박과 모순을 안은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이란 칠거지악의 명에 속에 남성에 의한 속박과 희생의 대상이었다.

남성 논리의 잣대로 여성에게 요구한 것은 끝없는 인내와 순종이었으며 이를 큰 부덕으로 치켜세웠다. 여성에게만 강요되었던 많은 덕목들은 여인들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한국적 정서인 한으로 표출되었다.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접받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으로 치부되었다. 오래 전에 비상 먹고 자결한 생모를 둔 성수 김약국은 딸만 다섯을 두어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한 현실과 계속되는 딸들의 불행을 통하여 작가 박경리는 운명이란 단어를 대입시킨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연속되는 불운을 선대에 한 맺힌 영혼의 세계와 결부시킴으로써 신비화시킨다. 그러나 비극적인 운명에 목적 없이 무너져 내리는 개인의 무력화라기보다는 그 각 개체들이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 『김약국의 딸들』의 생명력이자 작품성이라 말할 수 있겠다. 결국, 시종일관되는 불운의 연속 속에서 속절없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동성이 아닌 사나운 운명 앞에 보이는 당당함과 자기주관 그리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

냄으로써 주어진 현실에 맞서서 살아내려는 인간의 노력이 극적으로 표
현되었기 때문에 감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만수, 『자신의 운명 찾아가기』, 새미출판사, 1998.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 『비극의 미학과 개인의 한』, 서강대출판부, 1996.
류보선, 「비극성에서 한으로 운명에서 역사로」, 『작가세계』, 1994. 가을.
명형대, 「비극적 운명과 한」, 『여성과 문학』 제3집, 1999.
박경리, 『창작실기론』, 어문각, 1962.
진경갑, 『육당의 통제와 탈주』, 한길사, 1999.
조남현, 『박경리』(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8), 서강대출판부, 1996.

Abstract

Park, Kyoung-Lee : The Esthetics of Tragedy

Ahn, Nam-Yeon

Park, Kyoung-Lee's work concentrates on the tragedy of the female condition and the long-standing enmity resulting from it. The author's choice of focus had much to do with the unfortunate circumstances of her own life. However, sad as they were, by providing the stimulus for her literary work, these tragic personal events also had a positive impact. For instance, her best-known novel *Pharmacist Kim's Daughters* was based on the real life experiences of her own anguished destiny. This paper focuses

on the will to live of the author's female characters in the face of overwhelming adversity.

Pharmacist Kim's Daughters is concerned with three generations of tragedy which afflicted the women of the family. Of particular importance are the uncontrollable nature of death, and the results of both lost chastity and love which attempts to breach the barriers of social class in traditional Confucian society. In general, the novel explores the victimization of women in a traditional patriarchal social context.

In this society a woman was valued in accordance with the strength of her patience and obedience. Additionally, the multitude of rules to which a woman was subject led to unhappiness and over time grew to become an ever-present sense of resentment. This resentment of 'Han(恨)' has become a part of the Korean character. As men were of primary importance in this society, male offspring were essential to maintaining the status quo. Thus, to be without a male heir was source of great sorrow. In the novel, the characters are repeatedly anguished by this condition for no other apparent reason than that of an unkind destin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series of one generation and those of another is the central mystery of the novel.

Finally, the heart of the novel is the struggle to overcome this destiny through the use of sheer will. Rather than passively succumbing to the unhappiness of destiny, the author shows us that one can take a positive stance and transcend destiny by force of will. This struggle of the individual against fate is sure to evoke sympathy in the reader.

